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방한

-지역 훈련 모임 및 노변의 모임 가져-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첫째,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이요 안내자로 삼으십시오. 셋째, 그리스도의 행복의 계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식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성전 의식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19일 저녁 "노변의 모임"에서 서울 스테이크 센터를 가득 메운 서울 · 경인 지역의 회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스코트 장로는 또한 안식일인 11월 22일 저녁에 가진 "독신성인을 위한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여 역시 서울 스테이크 센터를 가득 메운 독신 성인 및 관련 역원들에게 "우리 각자가 주위에 빛을 발합시다. 미소를 지으면 주위에 밝은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십시오. …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주위의 많은 것에서 눈을 돌리고 그러한 것들에 관한 생각을 금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했다.

또한 젊은이들의 애정표현 방식 및 배우자 결정에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하신 사랑과 사탄이 정의한 사랑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정의한 사랑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 여러분은 절대로 옷을 입거나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분을 접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반려자를 찾을 때 성품을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친절하고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합당한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성전 성약을 잘 지키신다면 주님이 정하신 시기에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두 노변의 모임에 모두 참석했다는 한 회원은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권세와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권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두 노변의 모임에는 19일 모임에 800여 명, 22일 모임에 600여명의 회원들이 사도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입추의 여지없이 모임 장소를 가득 메웠으며, 19일 모임에서는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합창단이, 22일 모임에서는 온누리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모임을 더욱 빛냈다.

11월 24일 부산, 부산 서, 마산의 회원들이 함께 모인 '노변의 모임'에서 스코트 장로는 현대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경험을 비유로 하여 말씀했는데 첫번째, 돌멩이와 자수정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자고 강조했고, 두 번째로 경찰과 자동차의 비유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경찰이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에 데리고 갈 지도 모른다고 말씀했으며, 세 번째로 시계의 비유에서는 계속 밥을 줘야 가는 시계와 자동 시계를 비교하면서 계속 강권해야 일하는 성도와 스스로 일하는 회원이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일하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네 번째 스파게티의 비유에서는 자녀에게 무작정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깊은 우물 속의 비유를 통해서 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이 모임들 외에도 스코트 장로는 11월 20일과 21일에 서울 스테이크 센터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김종열 장로 및 한인상 서울 성전장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스테이크 부장, 지방부장, 선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훈련 모임을 가졌으며, 서울, 대전, 대구에서 세 번의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였다.

스코트 장로의 방한 기간 동안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와 제1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가 동행했다.

교회 국제판 잡지명이 성도의 벗에서 **리아호나** 로 변경됨

한국의 교회 국제판 잡지명이 "성도의 벗"에서 "리아호나"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몰몬경을 읽은 분들은 '리아호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앨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리아호나라 하신 것에 관하여 말하려 하노니, 이를 번역하면 나침반이며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라." (앨마서 37:38~39)

앨마는 리아호나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방향구가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같이 우리가 올바로 따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멀리 슬픔의 계곡 저 너머 보다 훌륭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45절)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신권 지도자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린 잡지인 이 국제판 잡지명이 리아호나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야곱 디야가 장로가 우리에게 교회 잡지를 읽도록 권고하기 위해 리아호나의 상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디야가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리아호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 잡지에서 주님의 길에 관하여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은 그 잡지로 인해 더 훌륭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76년 4월, 61쪽)

리아호나

새로 바뀐 제호 '리아호나'의 디자인. 이하 바뀐 제호의 디자인은 이희경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작품이다.

친구들

이전의 어린이 란은 '친구들'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회소식

이전의 지역 소식은 '교회소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타이티 장영보 형제 대통령 표창장수상

1998년 11월 30일 무역의 날을 맞아 현재 타이티에 거주하고 있는 장영보 형제가 무역 진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장 형제는 한국 무역 진흥 공사 남태평양 명예 대표, 타이티 피싱 에이젠시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한국과 타이티 국가 간의 무역, 원양 어업 진흥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는 타이티 국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으며 타이티에서의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원양 협회 타이티 소장, 타이티 태권도 협회 회장 등 수많은 직책을 맡아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그 외에도 1990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동백 훈장을 받았으며 1994년 6월 18일에는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브리감 영 대학교 "성공적인 사업가"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브리감 영 대학교 졸업생 중 우수한 사업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장형제는 1997년 7월 14일 CNN을 통해 그의 모범적인 가정 생활, 가치관, 생활 신조, 활약상 등이 세계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으며, 1989년에는 MBC TV의 "지구촌의 한국인" 프로를 통해 60분 동안 가정 생활, 교회 생활, 한국 원양 선원의 아버지이자 사업가로서의 성공 등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된 적도 있다. 장영보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한국 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거액을 내놓았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장학 사업에 관심을 보이겠다고 했다.

장 형제는 1966년도에 복음 선교사로 봉사를 마치고 부산 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한 후 1970년도에 하와이로 건너가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1979년에 타이티로 건너가 타이티와 한국과의 국제 교류의 물고를 트게 했다.

현재 그는 부인 이청자 자매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으며 장녀인 티나는 서울 서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바 있다.

엔다우먼트 1,000명을 마치며

이홍직
(강서 스테이크 소래 지부)

1981년 4월 1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한국 서울에 성전이 건립된다고 발표하셨고, 1985년 12월 14, 15일에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에 의해서 서울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고 김 산 형제님께서 족보를 한아름 안고 다니시며 "우리처럼 조상을 사랑하고 조상의 기록(족보)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서울에 아름다운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국의 말일성도들에게 아마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 스테이크, 동 스테이크, 서 스테이크에서 장로 정원회 담당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며 "4대 프로그램을 열심히 작성하여 산 자와 죽은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승영하는 기쁨을 누리자"고 권유하였고,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성전 담당 고등 평의원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참석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조상들에게 하나님 앞에 승영할 수 있는 기쁨을 주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매만져 주셔서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짐으로써 당신 앞에 더욱 충실하게 걷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께 향한 사랑과 봉사의 결의를 새롭게 하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봉사의 결의를 새롭게 하여"라는 기도문을 읽으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헌납식 모임에서 저의 조상님에게 "저는 10년 동안 1,000명의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엔다우먼트를 하고 나서 우리의 조상님들을 위한 성전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1986년에는 직장 관계로 성전에 가지 못하고 1987년부터 성전 대리 의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병원에 장기 입원을 두 번 하였으며 큰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상님과 약속한 대리 엔다우먼트를 10년 이내에 마치지 못하였고 결국 송구스럽게도 12년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장 문제로 1년, 평소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 본적이 없던 제가 병원을 1년 이상 드나들게 된 것은 사탄의 시샘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받았던 대리 엔다우먼트의 횟수를 연도별로 보면 1987년 86명, 1988년 88명, 1989년 46명, 1990년 56명, 1991년 59명, 1992년 90명, 1993년 69명, 1994명 111명, 1995년 61명, 1996년 66명, 1997년 126명, 1998년 250명이 됩니다.

이제 1999년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저의 조상님들의 성전 대리 의식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성전에서 열심히 대리 엔다우먼트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고 김광오 축복사님, 고 안희운 축복사님, 임인선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주제넘는 간증을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전을 오고 가며 이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불과 성신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영광 누리도다
2. 주께 온전히 맡긴 내 영 인내한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이상 보리로다
3. 주 안에 행복 누리므로 마음에 품안에 안정되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짐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회복된 이 교회에 개종한 것을 감사하고, 성약의 백성이 되며, 성전 의식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승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승영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해의 왕국실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감미로운 영혼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자"(교리와 성약 123: 17)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홍직 형제는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강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음악 활동 교류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북미 서부 지역의 한국 성도

북미 서부 지역의 한국 성도들은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왕성한 음악 활동 교류를 통해 성도들 간의 단합과 사랑을 다하고 있다. 1998년 한 해 동안 이 지역 여러 곳에서 열렸던 인상 깊었던 음악 활동을 모국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권천대)

시애틀, 밴쿠버와 프로보의 한국 성도들

시애틀의 한인 성도들

지난 6월 20일과 27일에는 북미 지역의 아름다운 해안도시인 미국의 시애틀과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김정애 자매의 오르간 연주회가 각각 개최되었다.

6월 20일에 열린 시애틀의 연주회는 아름다운 시애틀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렌튼 북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는데,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과 더불어 트럼펫과 스트링 앙상블이 협연하여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였다. 연주회가 끝난 후에는 시애틀 한인 지부(지부장: 정삼권 형제)의 상호부조회(회장: 김인만 자매)가 마련한 리셉션에 다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운 초여름밤의 한 때를 보냈다.

시애틀의 연주회에 이어, 6월 27일에 열린 캐나다 밴쿠버의 연주회는 일찍이 이곳에 이민와서 정착한 김태수 형제 부부(아내: 남순자 자매)의 초청으로 그 곳 스테이크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연주회에서도 캐나다 성도들과 한국 성도들이 다수 참석하여 아름다운 오르간 음악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연주회가 끝난 후에는 이 곳의 한국 성도들이 사랑으로 마련한 다과회에 다 함께 참석하여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이 곳 밴쿠버에는 한국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아 아직 한인 지부가 없지만 소수 정예의 충실한 성도들이 살고 있어,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데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있다.

한편 김정애 자매는 그 후 11월 17일 유타 주 프로보 시의 역사적인 태버내클에서 유타 밸리 심퍼니 오케스트라 및 유타 밸리 스테이트 칼리지 챔브 앙상블과 함께 생상과 모짜르트의 오르간 협주곡을 협연하였다. 특히, 이번 오케스트라와의 오르간 협연은 이 지역의 여러 신문에서 한국의 오르가니스트와의 협연을 뜻깊은 국제 간의 음악 행사로 크게 보도하여, 이 곳 한국 성도들은 물론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긍지를 느끼게 하였다. 이 연주회를 계기로 많은 프로보 지역의 한국 성도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하였다.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 성도들

솔트레이크 한인 지부 성도들

솔트레이크 한인 지부(지부장: 고광림 형제)는 두 차례의 음악회를 통해 이 지역(솔트레이크, 프로보 및 로간)의 한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하나는 지난 8월 8일에 개최된 시애틀 한인 지부 소속의 박상순 자매 소프라노 독창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10월 초 연차 대회 기간을 통해 가진 남가주 한국 몰몬 합창단(단장: 장관진 형제, 지휘자: 박관수 형제)의 "This is the place(이 곳이 바로 그 곳이다)"라는 뮤지컬 공연이다. 박상순 자매 소프라노 독창회는 아베마리아와 보리밭을 비롯한 주옥 같은 성곡과 한국 가곡을 불러, 바쁜 가운데 참석한 한국 성도들에게 한여름 밤의 휴식과 함께 모처럼 모국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였다.

프로보의 한인 성도들

한편 남가주 한국 몰몬 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은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남가주 4개 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원 40여 명은 연차 대회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간의 짧은 여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합창 공연 당일인 10월 4일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총회에도 합창 단원 모두가 참석하여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날 저녁에 개최된 합창 공연 중간에는 특별히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브라운 장로의 북한 방문 보고회도 곁들여, 이번 공연은 명실공히 음악과 말씀으로 어우러진 이상적인 음악 노변의 모임이었다.

브라운 장로의 영적 말씀에 이어 시작된 뮤지컬은 지휘자 박관수 형제가 직접 작곡한 것으로, 합창 단원 모두가 개척자 복장과 모습으로 분장하여 노래와 동작과 연기를 해설과 곁들여 열연하였는데, 신앙의 선조들이 보인 굳건한 간증과 용기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참석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 준 감동적이고도 영적인 공연이 되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원들에게 보내는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새해 인사

강릉 지방부

주여! 새해에 간절한 소망을 기원합니다. 탐욕과 질투, 시기에서 벗어난 맑고 투명한 가슴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진실을 위해 지혜와 선과 겸손의 옷을 입고 살게 하소서. 아멘.

광주 스테이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날마다 "즐거워 하고... 기뻐하"(잠언 8:31)시며, 세상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시고, 구원의 의식을 받고 성약에 충실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대구 스테이크

주님의 사업은 영혼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는 입을 열어"(교리와 성약 28:16) 주께서 "선택해 둔 자를 모으라"(교리와 성약 29:7)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권고에 따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분연히 일어날 것을 권고합니다.

대전 스테이크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음성에 청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자신과 가족과 직장과 사회에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세의 삶이고 내세를 위한 준비라고 믿습니다.

마산 스테이크

이제 희망과 도약의 1999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저희 마산 스테이크에서도 올해는 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산 서 지방부

지난해 보여 주신 신앙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늘 기쁨과 사랑과 큰 축복이 함께 하여 세상적으로 어렵지 않고 건강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스테이크

지난 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오며 새해에는 더욱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의로운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우리가 우리 종교의 원리에 충실히 생활하면,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대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강렬한 자로 남는다면 이 말씀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늘 너희 성벽을 지키느니라"(니파이일서 21:16)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회원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강화시키며, 순종과 겸손을 실천하여 신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됩시다.

서울 동 스테이크

우리 모두 장성한 사람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을 갖도록 합시다.(고린도전서 13:11 참조) 스스로 자신의 할 바를 찾아서 행하고, 부름에 대해 책임을 다하며, 나 외의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합시다.

서울 북 스테이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특별하신 보살핌과 주님께 드리는 의로운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도록 간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증드립니다.

서울 서 스테이크

21세기를 앞둔 20세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서울 스테이크

주님과 우리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교리와 성약 20:59), 그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모사이야서 2:41)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금년만은/ 빛을 만드신/ 주님의 빛으로 새해를 열자// 그래서 영원을 맞이하는/ 시작의 시간으로/ 그렇게 새해를 소망해 보자// 그러면/ 기묘년에는/ 우리 모두 기필코/ 그리스도를 만나려니.

수원 스테이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온 누리에 가득 차게 하시오며 어려움이 고통

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어 주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순천 지방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紛擾)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시편 39:6) 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날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예비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양 스테이크

하나님은 계획과 사업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지 않으시며 우리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움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의 결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듬뿍 열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원주 지방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한 해 동안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많은 의로운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천 스테이크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말일의 회복된 복음을 전

하고 간증하는 의로운 시온의 백성이 됩시다.

전주 스테이크

주님께서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태복음 18:14)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이 함께 노력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과 행운으로 가득 차기를 간구합니다.

청주 스테이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마태복음 3:3) 새해 주님과 맺은 성약에 더욱 충실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행동에, 이웃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합시다.

홍성 지방부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교회에서 늘 함께 만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

지난 11월 28일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이킴(말라기 4:6)"이라는 주제로 '98 전세계 청녀 축제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풍향 와드와 첨단 지부 청녀들의 노래로 시작되어 청녀 발전 보고서 수여식, 봉사를 주제로 한 필름스트립,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의 경험 나누기, 가족의 음악 발표, 세미나,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단의 축하 메시지인 수화 노래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가족을 주제로 각 와드 · 지부의 청녀들과 회장단이 준비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청녀 프로그램인 개인 발전 기록부를 통해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홍세라)

광주 신학 연구원

건물 기공식

지난 11월 28일 1973년에 개원한 광주 신학 연구원 건물이 새롭게 변신하는 첫 단계인 건물 기공식이 있었다. 이 날 모임에서는 관리 본부의 이석주 형제가 새로운 건물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광주 신학 연구원 임종하 원장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 연구원 건물에 대한 애착과 그곳에서의 마음가짐들에 대해 말씀했고, 박병규 교육 기구 대표는 이 순간은 오랜 기간의 우리의 기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이며, 신학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사랑과 우정의 도모 그리고 선교 사업의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안식처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다. 광주 스테이크의 여러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한 이 날 행사에서는 말씀에 이어 첫삽 뜨기를 하였고, 8월에 준공될 건물의 안전과 주님의 돌보심을 기원하는 마음들로 모임을 마쳤다.(김논산)

대구 스테이크

'98 여성 대회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며…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니파이이서 10:23)

지난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대구 수성 와드에서 98년 대구 스테이크 여성 대회가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열렸다. 대구 스테이크의 자매들은 물론 형제들도 함께 한 이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잘 준비된 모임이었다.

니파이이서 10장 23절 말씀을 주제로 하여 가족 역사 사업, 방문 교육, 선교 사업이라는 3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매들의 경험과 간증과 말씀이 있었다. 특히 말씀에 앞서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말씀은 그동안 잘 실천되지 않던 부분이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가족 기록서 작성의 중요성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하면서 매월 성진 방문때마다 일정량의 가족 기록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권고하였다. (장순자)

대전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홍부장은 미국의 직장인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National University에서 LA 일대에 있는 3개 분교를 관할하는 지역부학장(Associate Regional Dean)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직책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말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마태복음 6:33) 인생의 큰 경험과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첫째 보통 사람들은 최소 성취 의욕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몰몬은 모두 최대 성취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남보다 부지런히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으며, 둘째, 복음의 원리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용하면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셋째 '가정에서의 실패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는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정직과 윤리 도덕을 가르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송윤헌 대전 스테이크 부장이 마련한 떡과 과일로 단란한 시간을 가졌다.(오현옥)

마산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지난해 10월 25일 마산 와드에서는 이도환 공보 위원장을 모시고 유학에 관련된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하여 이도환 형제는 자신의 브리감 영 대학교 수학 시절의 공부 방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원서 구입 방법, 입학허가 받는 절차, 입학자격들을 미국 내의 교회 관련 대학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청소년 및 관심있는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임준덕)

특별 금식주 모임

배태호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한 마산 스테이크 모든 회원은 12월 금식주를 남부 지역의 소성전 건축 소망을 담은 특별 금식주로 지정하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서울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스테이크에서는 매달 세째 주 토요일을 단체 방문 주로 정하여 버스로 성전을 방문해 왔다. 배태호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곳 남부 지역에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부산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

지난 해 11월 21일 부산 스테이크의 각 와드에서는 청녀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다.

특별히 수정 와드에서는 와드 로드쇼와 함께 모든 회원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청녀들을 위한 청녀 창립 기념 행사를 가진 후 청녀들의 노래 발표, 영어 회화반의 중창, 상호부조회의 성극, 장로 정원회의 립씽크, 청소년의 연극

발표 등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발표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 개개인 사이에 유대를 돈독히 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류현주)

부산 신학 연구원

바운티풀 축제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에서는 부산 신학 연구원 평의회 주최,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바운티풀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괴정 지부 독신 자매들이 준비한 오보에,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를 발표한 후 무도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이번 축제를 위해 몇 달 동안 연습을 한 도우미들의 활약으로 구도자들도 쉽게 적응하고 함께 즐거워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 신학 연구원 학생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바운티풀 축제를 주최하고 있으며, 금년도 축제는 많은 독신성인들이 오랜 기간동안 잘 준비를 해와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영어 회화반 구도자와 우정의 밤 개최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 화곡 와드에서 영어 회화반에 참석하는 15명의 구도자와 60여 명의 와드 회원이 함께 "우정의 밤" 행사를 가졌다. 와드 선교 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영적 말씀과 영어로 나눈 간증에 이어서 구도자들이 준비한 영어 연극 'Is there a vacant room anywhere?'를 선보였다. 이 연극은 요셉과 마리아 등이 출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으로 성탄절 절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회원들은 음악 연주와 댄스, 장고 연주 등을 발표했고 게임 활동과 식사 시간이 있었다. 특별히 이 날 행사는 영어 회화반의 모든 구도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주최한 것으로 서로간의 우정을 증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오은용)

청녀 창립 기념 행사

지난해 11월 21일 100여 명의 부모와 청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1998년 세계 청녀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청녀들뿐 아니라 청남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마음을 돌리고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렸다.

길정권 강서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시작된 이 모임의 1부 —영적인 순서— 에서

는 청녀 가치관을 다같이 낭독한 후에 개인 발전 기록부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실천한 모범 청녀에게 표창을 하였고, 더불어 청녀 지도자로 봉사한 청녀 회장단도 청녀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청녀 표창을 받은 신월 와드 정혜숙 자매가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면서 갖게 된 기쁨에 대해 간증하였고, 이어서 청녀 회장단으로 봉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화곡 와드 김 영 자매가 간증하였다.

신월 와드의 이유나 자매가 찬송가를 편곡하여 가야금을 연주하였고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각 청남, 청녀 대표가 낭독하였으며, 이어서 부모님을 대표해서 길정권 스테이크 부장과 김영희 자매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활동 순서는 1시간동안 무도회방과 게임방, 영화감상방으로 분반되어 진행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한 이번 모임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김 영)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

지난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녀 창립 기념 행사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처음 순서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종찬 형제의 환영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청남들이 피아노와 플룻 연주에 맞추어 축가를 불렀다. 김지은 자매는 '가정의 밤' 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면서 가족의 사랑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으며, 강정진 자매는 가족 역사와 봉사 활동을 통해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책임감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최민정 자매 가족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어서 이단비 자매, 한민숙 자매와 한 자매의 어머니의 간증이 있었으며, 고문들의 축가에 이어 장효진 자매와 그 어머니의 편지 낭송이 있었다. 2부에서는 약 8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포크 댄스를 즐겼다. 이 날 모임은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장효정)

초등협회 중창 대회

지난해 11월 28일 동대문 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 는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성과 협동심을 길러 그들을 발전시킨다' 라는 주제를 갖고 초등협회 어린이들의 중창 대회가 열렸다. 스테이크 내의 여섯 개 와드 · 지부 어린이들이 준비해 동요와 초등협회 노래를 발표했는데,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천진함이 어우러져 그 즐거움이 한결 더했다. 찬조 출연으로 용두 와드 최원영 · 원석 어린이 형제의 피아노 3중주와 이문 지부 최원철 어린이와 문근혜 자매의 이중창, 용두 와드 이세리 어린이의 국악 발표가 많은 어린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발표한 각 와드 · 지부 어린이들에겐 맑은 목소리 상, 용기 있는 목소리 상, 고운 목소리 상등이 주어졌으며 영예의 1등상은 교문 지부로 돌아갔다. 특별히 이번 초등협회 중창 대회에는 새로 초등협회 회원이 된 장안 와드의 성유화 · 유선 자매, 면목 와드의 변미화 · 미송 자매가 함께 참가한 뜻깊은 대회였다. (임종숙)

서울 동 · 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 합동 M.T.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서울 동신학 연구원에서는 동 · 서 신학 연구원 합동 M.T.가 있었다.

약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이번 모임은 27일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28일 오전 세미나, 체육 활동, 음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지난 여름의 동 · 서 신학 연구원 합동 농활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동 · 서 신학 연구원의 합동 모임을 통해 같은 교회의 성도이지만 지역이 다름으로 인해 그 동안 별 교류를 갖지 못했던 양 신학 연구원의 학생들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나눌수 있었다.

서울 북 스테이크

송년 합창 대회 및 보조 조직 모임 가져

1998년을 마감하는 송년 합창 대회가 12월 12일 녹번 와드에서 일산,불광 등 스테이크 산하 10개 와드 · 지부의 성도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 와드 · 지부 회원들은 찬송가 또는 건전 가요 등 2곡씩을 불렀으며 특별히 녹번 와드의 "어린이의 기도"가 청중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11월 28일에는 연례 대제사 정원회 모임을 녹번 와드에서 가졌다. 97명의 대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 북 스테이크의 이 날 모임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중인 이상로 형제(불광 와드) 가족이 인도에서의 주재원 생활시 경험했던 신앙 생활

을 간증으로 전했으며 가족 찬송을 불러 영을 고양시켰다.

참석한 회원들은 스테이크 부장단이 마련한 식사를 함께 하며 우의를 다졌다. 서울 북 스테이크는 또한 청녀 창립 기념 행사와 독신 성인 모임을 11월 21일에, 보이 스카우트 대집회를 28일에 녹번 와드에서 갖는 등 다양한 보조 조직별 활동을 가졌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가 지난 해 11월 14일 윤세영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6개 와드 청남, 청녀,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하여 가족의 중요성과 앞으로 만들어갈 가족에 대해 충실히 준비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사를 위하여 청남들이 직접 만들어 장식한 여러 동물 모양의 풍선들은 모임의 분위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또한 청남들은 상대 팀이 던진 공으로부터 청녀들을 보호하는 피구 게임의 활동을 통해 신권을 가진 말일성도의 진정한 형제임을 보여 주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청녀들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은 가족과 신권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청녀의 가간을 가치있게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합동 독신 성인 모임

지난 11월 14일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윤세영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합동 독신 성인 모임을 가졌다.. 스테이크 독신 성인 의장인 조중호 가 진행한 이번 합동 모임에서는 "윤리 심사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별하고 신선한 영화"를 감상했다. "나무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영화는 주위 사람들의 의심과 무관심, 질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확신으로 미래의 후손들의 삶을 위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독신성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가치 있는 것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98년 개종자 대회

지난 12월 13일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1998년 한 해동안 개종한 모든 개종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개종자 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최근에 침례받은 개종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악기 연주와 간증을 번갈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형의 개종을 계기로 침례 받게 된 김찬영 형제(초등학교 2년)는 바이올린 연주 도중 실수를 몇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연주해 내는 초등학생답지 않은 끈기와 인내를 보여 줌으로써 참석한 회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초등학생인 김동용 형제는 "비발디 협주곡 가단조 제3악장"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었고, 청녀인 장민지 자매를 비롯해 순서를 맡은 회원들이 플룻 연주와 기타 연주, 피아노 연주 등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 주었다. (안상철)

서울 선교부

해리스 서울 선교부장 인기 가수 인순이와 복음 토론을 하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어야 하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줄 때 비로소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을 사랑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해리스 선교부장으로부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받고 가수 인순이씨는 기뻐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회 봉사를 하는 인기 연예인으로 또한 남다른 겸손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인순이씨는 성전과 대리 침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자원 봉사자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한 인순이씨는 현재 펄벅 재단 후원회장으로서 "꼭 물질적으로 돕기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어

려운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이혼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으며 "나라안 경제 사정이 나빠져 이웃 사랑이 소홀해질까 걱정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해리스 서울 선교부장은 몰몬경, 교회 공보 책자 및 자신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선물로 전달하고 가까운 시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허용환 제1보좌 가족과 함께 한 이 자리에는 부군 박경배씨도 참석했다.

온누리 합창단

자선 음악회

지난 11월 30일 연세 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장학 기금 모금을 위한 '98 온누리 합창단 자선 음악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의 제1부에서는 정대판 형제의 지휘로 찬송가들이 연주되었으며, 제2부에서는 낭독과 찬양이 곁들여진 알렐루야가 발표되었는데 특별히 2부 '알렐루야'에서는 한인상 서울 성전장의 간증과 독창, 시각 장애자인 이성대 형제의 간증이 곁들여져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편 온누리 합창단은 지난 12월 5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 온누리 합창단 자선 음악회 부산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에서 온누리 합창단 단장인 정대판 형제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온누리에 퍼지게 하여 음악을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온누리 합창단의 모토를 전하였으며, 공연 순서는 서울 공연과 같았으며, 온누리 합창단의 단원들이 발표 중에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였다.

정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온누리 합창단은 이번 정기 공연을 위해서 매주 3,4번씩 모여서 연습을 해왔다.

청주스테이크

독신 성인 제 1회 "사계절 모임"

지난 11월 15일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80여 명의 독신 성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계절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청주 스테이크스테이크의 독신 성인 활성화와 결혼을 앞둔 적령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었다. 이 모임에서 독신 성인들은 물질적 구원의 원리, 구애 절차와 방법, 배우자는 선택하는 것인가 선택받는 것인가라는 각각의 주제를 갖고 토론하면서 서로를 알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미래에 이룰 가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 계획을 세워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은 매 계절마다 개최될 계획이며 점차 범위를 넓혀 타 스테이크와 연합하여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은숙)

역원 변경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지부장: 이진석
(전임자: 황선용)

영동 스테이크
분당 지부 지부장: 이원강
(전임자: 강종태)

안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감독: 이성렬
(전임자:임정록)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지부상: 이성남
(전임자: 곽재윤)

부산 스테이크
방어진 와드 감독: 구자길
(전임자: 임태균)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216기 4명 / 해외 1명 / 성전 2명

고광필
부산 선교부
제주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상미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김정구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대전 선교부

최길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대전 선교부

이유경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유타 템플 스퀘어 선교부

리차드 클레이 터너 / 앤 로즈 보직 터너
프레스노 동 스테이크, 제 1와드
서울 성전